FRENCH SEASON

LG SIGNATURE와 함께하는

필립 드쿠플레 '샤잠!'

'SHAZAM!' by Philippe Decouflé Compagnie DCA

2024.10.25 - 27

LG SIGNATURE 홀

CoMPAS 24

LG ARTS CENTER SEOUL

LG아트센터 서울 기획공연
CoMPAS 24
2024.4.7 – 2025.1.19

LG Arts Center SEOUL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4

LG SIGNATURE 홀

4.7 Sun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마태 수난곡'
5.4 Sat	파비오 비온디 & 잔자코모 피나르디 '파가니니 소나타'
5.8 Wed – 19 Sun	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
6.4 Tue – 7.7 Sun	사이먼 스톤 연출 '벚꽃동산'
10.1 Tue	고티에 카퓌송 & 장이브 티보데
10.25 Fri – 27 Sun	**필립 드쿠플레 '샤잠!'**
11.7 Thu – 10 Sun	조엘 폼므라 '이야기와 전설'
11.13 Wed	백건우와 모차르트

U+ 스테이지

11.9 Sat – 17 Sun	이은결 연출 '멜리에스 일루션'
11.27 wed – 25.1.19 Sun	연극 '타인의 삶'

LG아트센터 서울의 2024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 24'는
다음의 파트너들과 함께합니다.

협찬 Sponsored by

LG LG전자 LG U+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한화생명 COURTYARD BY MARRIOTT Seoul Botanic Park

후원 Supported by

INSTITUT FRANÇAIS
AMBASSADE DE FRANCE EN RÉPUBLIQUE DE CORÉ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일시/장소 2024.10.25(금) - 27(일) LG SIGNATURE 홀

소요시간 90분

‘SHAZAM!’ by Philippe Decouflé, Compagnie DCA

필립 드쿠플레

프랑스의 혁신적인 연출가 겸 안무가 필립 드쿠플레. 춤, 연극, 서커스, 마임, 비디오, 영화, 그래픽 등을 뒤섞은 화려한 비주얼과 미디어 효과로 공연의 미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명실상부 '프랑스 문화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1983년, DCA 컴퍼니를 창단하여 선보인 첫 작품 '텅 빈 카페(Vague café)'로 바뇰레 안무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본격적으로 안무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드쿠플레는 '코덱스(Codex)'(1986), '트리톤(Triton)'(1990)을 연달아 성공시킨다. 1989년에는 그가 직접 연출한 폴라로이드 광고로 베니스 영화제 은사자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프랑스 혁명 50주년 기념 공연의 일환으로 '나막신의 춤(Danse des Sabots)'을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올려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내며, 특정 장르나 공간이 그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한계 안에 가둬둘 수 없음을 보여줬다.

기발한 상상력과 함께 예측 불가한 매력이 공존하는 그의 공연은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그 진가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달팽이 껍질을 닮은 거대한 튜바 등 독특한 모양의 구조물과 특이한 의상, 무용, 아크로바틱, 서커스 등 모두가 화려하게 녹아든 그의 연출은 올림픽 개막식을 예술적인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무대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드쿠플레는 31세의 젊은 나이에 일약 스타가 되었고, 프랑스 언론은 그의 창의적인 연출 방식이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도,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함을 지녔다 하여 '드쿠플러리(Decoufleries: 드쿠플레 방식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1998년, '드쿠플러리'의 정점을 품은 대작, '샤잠!(SHAZAM!)'이 탄생한다. 그가 연출을 맡았던 제50회 칸 영화제 축하 개막 공연을 극장 공연으로 완성시킨 '샤잠!'은, 드쿠플레만의 스타일로 무대를 벗어나 영상 안팎으로 춤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극찬을 받았고, 전 세계에서 이 공연을 올려 달라는 러브콜이 쇄도, 여러 도시를 투어하면서 200회 이상 공연되는 기록을 세웠다.

드쿠플레는 Diversity(다양성), Camaraderie(동료애), Agility(기민함)의 앞 자를 따서 만든 자신의 무용단, DCA 컴퍼니의 지향대로, 어느 하나의 장르로 규정되는 것을 거부하며 예측할 수 없는 모험을 계속해왔다. 프랑스의 상징적인 카바레 '크레이지 호스 파리'에서 '욕망(Désirs)'을 연출, 대중적으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갔고, 세계적인 서커스단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와 함께 '아이리스(Iris)', '파라무어(Paramour)'를 같이 만들어 서커스 연출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23년에는 에르메스가 런칭한 새로운 브랜드, '에르메스 홈(Hermès Home)'의 컬렉션 출시를 알리는 퍼포먼스 '에르메스 퍼레이드'의 아트 디렉터로 참여해 서울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2014년 '파노라마', 2016년 '콘택트'로 LG아트센터에서 한국 관객들을 만났던 필립 드쿠플레. 2024년 LG아트센터 서울로 돌아오면서 그가 고심해서 선택한 작품은 '드쿠플러리'의 정점을 보여주는 공연, '샤잠!'이다. 무엇이든 불러내는 마법의 주문, 샤잠! 유쾌하고 환상적인 드쿠플레 월드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PHILIPPE DECOUFLÉ

© V.Baeriswyl

“이 공연은 기술적인 이유, 예술적인 이유, 그리고 여전히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해 아직 미완성입니다.”

1998년 초연 후, 전 세계에서 4년간 200회 이상 공연되며 필립 드쿠플레와 DCA 컴퍼니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은 ‘샤잠!’은 공연 말미에 이런 대사를 남기며 끝난다. 드쿠플레가 연출한 제50회 칸 영화제 개막 공연을 발전시킨 ‘샤잠!’은, 거울, 액자, 영상 등을 이용한 시각적 착시와 각종 아날로그 영화 기법을 탐구하는 일련의 실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20세기 말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21세기의 최첨단 영화 기술을 예견이라도 하듯, ‘샤잠!’은 초연 당시 작품을 통한 탐구와 실험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막을 내렸다. 당시에는 이 대사가 그저 실재와 허구의 경계를 흐리는 유쾌한 메타적 장치로 읽혔으나, 그로부터 23년 뒤 ‘샤잠!’은 정말로 돌아왔다!

‘아브라 카다브라’,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말로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같이 주문을 외울 때 외치는 말이 ‘샤잠(SHAZAM)’이다.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 ‘열차의 도착(1896)’을 처음 본 사람들이 마법이라도 본 듯 혼비백산하여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샤잠!’은 액자 프레임, 거울 등 아날로그적인 장치와 디지털 영상 장치를 혼용해 가상과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고, 무대 위에 구현할 수 있는 시각적인 차원을 확장했다. 요즘에는 영상효과를 사용하는 공연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샤잠!’은 최초로 공연에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소위 ‘융복합 공연’의 시초격 작품이기도 하다.

‘샤잠!’에서 끊임없이 변주되는 프레임의 다중성은 영화에 대한 드쿠플레의 깊은 애정과 오마주를 표현한다. 프레임을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따라 눈앞에서 춤추는 무용수들은 영상 속 2차원의 인물이 되기도 하고, 영상 속 무용수들이 무대 위에 등장하거나 거울에 투영되어 무한대로 중첩되기도 한다. 실체와 상(像)이 구분되지 않는 가운데 무용수들은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드는 마법을 부린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무대로 올라와 관객들에게 다음 ‘실험’을 소개하는 무용수들의 대사는 드쿠플레 특유의 유머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

© Laure Delamotte Legrand

© Quentin Bertoux

**"'샤잠!'에서는 영화가 상영되는 동시에 영화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은 실재와 가상이 공존하는 무대와 스크린 위를 이리저리 떠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범람하는 이미지들 속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필립 드쿠플레**

오리지널 '샤잠!'이 녹화된 무용수들의 영상과 실제 무용수들을 병치, 이미지와 착시로 실재와 가상의 경계를 넘나들었다면, 새롭게 탄생한 '샤잠!'은 1998년 초연 당시 무용수들의 영상과 지금의 무용수들을 병치해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Z축을 덧입혔다. 2024년 LG아트센터 서울에서 공연되는 '샤잠!'은 1998년 초연된 오리지널 '샤잠!'의 재현·재창조이자, 무용이라는 일시적이고 신체적인 장르가 마주하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드쿠플레의 고민을 담은 도전이다. 필립 드쿠플레가 최초로 시도하는 '샤잠!'의 재창작을 위해 초연 당시 참여했던 원년 멤버들이 기꺼이 모였고, 이들의 신체는 나이 들었어도 더 깊어진 테크닉과 연륜, 그리고 여전한 장난기와 유쾌함을 보여준다. 필립 드쿠플레 최고의 작품으로 불리는 '샤잠!'의 환상과 마법, 그리고 드쿠플레가 20여 년에 걸쳐 빚어낸, 시간이 새겨진 춤에 대한 그의 대답을 만나보자.

'샤잠!'과 '샤잠! 2.0.2.1'

필립 드쿠플레가 칸 영화제 50주년을 기념해 영화에 대한 오마주로 창작한 '샤잠!'은 1998년 초연 후 파리의 심장부인 오페라 가르니에 극장을 포함, 전 세계에서 200회 이상 공연되며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겼다. 그로부터 23년 후인 2021년, 오리지널 창작진과 무용수는 물론, 뮤지션과 기술 스태프들까지 다시 모여 '샤잠!'을 재탄생 시킨다(원제 'SHAZAM! 2.0.2.1').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것은 2021년 프랑스 르 볼칸 극장에서 초연된 재창작 버전으로, 친숙함과 편의성을 위해 제목을 '샤잠!'으로 표기하였다.

‘샤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샤잠!’을 무대로 다시 불러오기까지

글. DCA 컴퍼니 제공

2019년, DCA 컴퍼니는 창단 35주년을 맞아 프랑스 샤이오국립극장에서 ‘Tout doit disparaître (모든 것은 사라져야 한다)’라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우리와 함께 작업했던 무용수, 배우, 음악가, 기술 스태프 등 60여 명이 모여 DCA 컴퍼니의 35년 공연 역사를 관객들과 함께 나누는 공연이었다. 관객들은 극장 곳곳을 거닐면서 드쿠플레의 대표작 15편에서 발췌한 무용, 연기, 전시 등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었다. 이 이벤트를 계기로 '샤잠!'을 만들었던 드림팀이 오랜만에 만났고, 2021년 2월 프랑스 르 볼칸 국립극장에서 지금 시점의 ‘샤잠!(SHAZAM! 2.0.2.1)'을 만들기로 의기투합한다. DCA 컴퍼니는 초연을 올린 후 몇 년이 지난 작품은 더 이상 공연하지 않고 신작에 착수했으며, 고정적으로 공연하는 레퍼토리를 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나 흐른 시점에 ‘샤잠!’을 되살린 이유는 단순히 컴퍼니의 역사적인 작품을 옛 동료들이 함께 다시 만드는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춤을 기억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1998년 초연을 올렸던 ‘샤잠!’의 원년 무용수들이 최대한 같이 했고,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이들에게 춤을 전수 받은 새로운 세대도 합류했다. ‘샤잠!’의 재창작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기 이전에 과거를 섬세하게 재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무용은 본질적으로 순간의 예술이자 끊임없이 변화하는 몸의 예술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우리는 과거의 시간에서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까? ‘샤잠!’을 다시 무대로 불러들이는 작업은 과거와의 재회인 동시에 이별이었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상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일이었다. 이는 우리가 춤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자 춤을 망각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세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하듯, 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샤잠!’을 다시 공연하는 이유는 춤과 춤의 전승, 시간이 흐른 뒤 춤의 지속성에 대한 여러 질문에 답하고자 한 우리의 시도였다. 영원히 사라져 버린 것들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전성기의 신체로 구상한 안무를 나이가 들어버린 신체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10년, 20년, 또는 30년이 지난 후 과거의 춤을 다시 추는 것은 분명히 이전과 다른 차이가 있을 것이고, 바로 그 차이를 ‘샤잠!’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마치 각기 다른 장소에서 하나의 질문을 하는 것처럼 – ‘샤잠!’에서 영상 속 1998년의 무용수들과 같은 사람들인, 무대 위 2024년의 무용수들이 동시에 존재하듯이 – 시간 속에서 각자 다른 경험을 새겨온 몸들이 과거와 똑같은 실연을 통해 새로운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춤을 춘다.

© Laure Delamotte Legrand

CAST & CREATIVES

Direction & choreography

Philippe Decouflé

Choreography assistant Pascale Henrot

With Manon Andersen, Flavien Bernezet, Meritxell Checa Esteban, Stéphane Chivot, David Defever, Eric Martin, Alexandra Naudet, Olivier Simola, Violette Wanty, Christophe Waksmann, Ye Hyoseung

Original music & live performance

Sébastien Libolt, Yannick Jory, Paul Jothy, Christophe Rodomisto

Lighting design Patrice Besombes

Accessories Pierre-Jean Verbraeken

Costumes design Philippe Guillotel assisted by Peggy Housset, Jean Malo

Technical direction Begoña Garcia Navas

Set construction Guillaume Troublé

Video Laurent Radanovic

Lighting Chloé Bouju, Grégory Vanheulle

Stage Léon Bony, Anatole Badiali

Sound Jean-Pierre Spirli

Films Michel Amathieu, Jeanne Lapoirie, Dominique Willoughby

CREDITS

Produced by Compagnie DCA / Philippe Decouflé

Co-commissioned the creation in 1998 by

Festival de Saint-Denis, La Coursive – Scène Nationale de La Rochelle avec le soutien de la Mission Mécénat de la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Co-commissioned the re-creation in 2021 by Le Volcan, Scène nationale du Havre

Supported by Chaillot – Théâtre National de la danse (Paris)

LG아트센터 서울
LG Arts Center SEOUL

LG아트센터 서울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교류를 통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목표로
LG연암문화재단에서 LG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연장입니다.

2000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관한
LG아트센터는 동시대를 살면서 놓쳐서는 안 될
세계적인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예술가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놀라운 영감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2년간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LG아트센터는
2022년 10월, 'LG아트센터 서울'이란 이름으로
마곡지구에 새롭게 개관하여, 풍부한 자연 환경 속에서
확장된 예술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아트센터 서울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예술가와
열정적인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LG아트센터장
이현정

공연기획팀
팀장 신민경
김주연 김다솜 송수찬 김호연 정서영
대관·하우스 김철원 허윤정 옥가희

홍보마케팅팀
팀장 김지인
한동희 오경은 오지수 이혜리
디자인 신미현
티켓 배윤정 류선주 김나연 김아영
김수정 이예림

운영팀
팀장 양영수
김재윤 김순자 김홍연 김지훈 안태훈 염인호

무대기술팀
팀장 엄성기
무대 홍지웅 송경근 배완수 박승철 윤혜성
이유리
조명 전명진 류대경 류한경 이준현 손나래
음향 이범훈 엄준석 김현주 오성범

제작지원
무대 크루 김관양 안병로 박재민 정용혁
이현준 박영진 김민재 김유진 이준혁 이상혁
조명 크루 안지현 최길주(팔로우스팟 opr) 김대희
신희 유성욱 정호진 오정훈 이세영 라성연
음향 크루 엄샛별 김다해 장지현
의상 크루 조세리 신현진 (딜스토리)
통역 한원경 김세은 조연수
악기 PTS
영상 정해인 황종현 (제이컴퍼니)

LG아트센터 서울
고객 만족도 조사

관객 여러분께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 참여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설문 기간 ~ 11/9(토)
기프티콘 발송일 11/22(금) 이후 순차 발송

※ 본 설문은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참여 인원 마감 시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LG SIGNATURE 홀은
본질의 가치(The Art of Essence)를 지키며
삶이 예술이 되는 경험을 제시하는
LG전자의 초 프리미엄 가전
LG SIGNATURE의 브랜드 가치를 담은
공연장입니다.

SPONSORED BY
LG SIGNATURE

LG OLED의 압도적인 화질로 만나는
LG아트센터 서울 개관 1주년 기념 미디어아트 특별전

빛과 인간을 담아내다

Gijeong Goo
구기정
Sungsil Ryu
류성실
Wobistdu studio
보비스투 스튜디오
SoftMatters
소프트매터즈
Inhwa Yeom
염인화

LG아트센터 서울
2층 아트라운지

8.9. 금
–
11.17. 일

운영시간. 11am-10pm (월요일 쉼)

관람료. 무료

주최

LG ARTS CENTER SEOUL
LG전자

주관

한국메세나협회
Korea Mecenat Association

LG SIGNATURE 세탁건조기

세탁에서 건조까지
하나의 도어 안에서

새로운 세탁건조의 시대